

權五乙 대표의 포럼 ‘오늘’ 매주 목요일 아침 ‘목요공부방’ 열어



▲ 포럼 ‘오늘’의 목요공부방이 열리고 있다



▲ 포럼 오늘의 정기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다

권씨의 본향 경북 안동 지역 구에서 15·16·17대 내리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權五乙(검교공파 사복재계恩復齋系 35세)씨가 의정활동 중에도 자주 포럼을 운영해왔던 점을 살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건너 한나라 당사 앞의 삼보호정빌딩 7층에서 포럼 ‘오늘’의 대표가 되어 매주 목요일 이른 아침에 공부하는 모임 ‘목요방’을 열고 있다. 동 빌딩의 721호실, 권오을 대표의 사무실도 겸하고 있는 20여 평 정도의 이 공부방은 목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열리고 구성원은 회원·운영위원·자문위원·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다.

회원은 토론회와 목요방 및 현장활동에 참여하며 월회비를 1만원씩 내는데 이는 거기에서 공부하며 아침요기 대용으로 제공되는 김밥과 음료 값인 셈이다. 운영위원은 재정과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하면서 월회비가 10만원이고 자문위원은 포럼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하고 연구위원은 정기 토론회 및 공부방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필자가 찾아간 5월 27일 목요일 아침은 동 포럼의 공부하는 목요방이 28회째를 맞는 날이었고, 이는 이미 6개월 이상을 한 주도 빠짐없이 지속해온 바였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그같은 행복을 막아설 때가 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어 포기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 포럼 ‘오늘’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으로 진단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자 한다. 포럼 ‘오늘’의 권오을 대표는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매주 포럼을 운영해왔다. 당시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포럼과 교류를 해오면서 더 많은 분들과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만남을 지속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감대에 관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을 모시고 이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다.”

포럼 ‘오늘’의 창립 취지를 밝힌 구절의 인용이다. 포럼은 2009년 10월 12일 ‘행복추구권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창립 토론회를 열고 임현진 서울대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17일이 지난 10월 29일 목요일에 1차 목요방을 현재의 장소에서 열었는데 초청 인사는 황상민 연세대 교수이고 주제는 ‘대중심리와 정치’였다. 2차 목요방은 안중범 성균관대 교수의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이어지고 이후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책자문위원인 권오을 대표 자신의 ‘한국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비교’, 류동길 숭실대 교수의 ‘세종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필상 고려대 교수의 ‘2010비전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등으로 회를 거듭하면서

상황을 이루어갔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포럼의 대표와 초청 전문가 3인이 마주앉아 대담식 아침 공부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포럼은 지난 3월 9일 화요일, 식전이 아닌 오후 4시에 국회의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2010년의 정기 토론회이고 주제는 ‘정당정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그 사회는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맡았다. 그 세부 토론 주제는 ‘공천제도의 개혁·정당 분권화·정당 정치 자금의 현황과 과제·자유 투표와 정당 투표·정당한 경쟁과 협력·대통령(여당)의 관계’이고 발표자는 심지연 경남대 교수, 토론자는 강원택 숭실대 교수, 객진영 건국대 교수, 권오을 포럼대표, 김성식 국회의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다. 그 개회 인사말에서 권오을 포럼대표는 “지난 주 폐막된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5위를 하였다. 빙상 종목에서 메달이 쏟아져 세계가 놀랐고 일본에서는 한국을 배우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번 동계 올림픽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앞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과거와 다른 사회로 한 단계 진보하였음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당당한 태도와 메달 세리머니에서 상징적으로 보게 된다. 국운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음을 이 땅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오늘이다. 이같은 국운 상승의 기운을 생각하다가도 이 나라의 정치를 떠올리면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발전과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는 대의는 저버리고 파벌과 이념에 얽매어 마음을 연 토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정치이다. 이 같은 정치현실의 바탕에 이 나라의 정당이 있다. 우리나라 정당의 구성과 운영은 초등학교 수준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것을 조정하고 비전을 제시하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정당들은 파벌과 이념으로 갈라지고 때로는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에게 굴복을 강요한다. 여당은 대통령이 은밀하게 한마디 하면 이를 당론으로 삼고, 야당은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려 든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 포럼 ‘오늘’이 오늘 ‘정당정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하여 고민하여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였다. 정몽준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고민하는 새 자리가 마련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정치를 걱정하고 계신 많은 국민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 할 줄로 기대가 크다. 토론의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포럼 오늘 권오을 대표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우리는 지금 선진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시대로 가느냐 마느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제1의 과제가 바로 정치 개혁이다. 경제는 1류, 정치 3류라는 평가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정치의 낡은 관행을 뜯어고치는 일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최급선의 과제라 할 것”이라는 요지를 말하고 있고, 정병국 사무총장은 “50여 년 전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했다. 그러나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의 재해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국가로 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이다.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은 아니다. 경제력의 발판에 국민 의식의 선진화, 정치의 선진화도 병행되어야 된다. 우리는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어냈지만 현존하는 정당은 여전히 반민주적이고 후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명멸한 우리나라의 정당 모습은 1인 보스 정치, 계파 갈등, 지역주의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선진화된 각 정당이 집권을 위해 정당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선진화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포럼 오늘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

는 정치의 선진화와 개혁이라는 거대담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었다.

5월 27일 아침 필자가 찾아갔을 때의 ‘목요공부방’ 주제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선 5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 비교’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유문종사무총장이 초청 강사로 나와 주제 발표와 강의를 하였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공적인 선언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당이 선거 후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으로 정리되는 술어였다. 장절章節 형식으로 세분하여 프로젝트로 벽면에 투사하며 항목별로 강의한 내용은 ‘매니페스토의 정의定義·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목표·외국의 매니페스토 운동 현황·한국의 매니페스토 지선地選·대선大選·총선 과정의 차별화 접근·민선 5기 매니페스토 이행방안 제안·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니페스토의 역할’ 등이었고 50여분에 걸쳐 발표강의가 있었고는 강사와 청사자간의 질의응답식 토론이 이어졌다. 유문종 강사는 그 ‘마무리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약은 선거 시기에 집중되며 당선이 되고 나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수없이 많은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록을 기억하고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매니페스토 실천의 출발이라 생각한다. 즉, 각 후보자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1순위 공약만 비교분석해보아도 올바른 투표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후보자들 역시도 우선순위의 공약에 집중하고 실천하여 실현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은 모두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바른 평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연락처는 02) 784-9076 ~ 7/forumtoday.co

〈사진·글 權五熙〉



▲ 권오을 대표가 초청강사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